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편 집 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 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53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2년 1월 31일(월)



## 심사정 할아버지 맹호도 250년 만에 서각으로 재현

이 작품은 심사정 할아버지(1707~1769)가 그린 맹호도를 종보 편집위원이자 서각작가인 창강 심재성 씨가 느티나무 판자에 재현한 것이다. 작품 완성에는 1주일이 걸렸다. 재성 씨는 “올해가 호랑이의 해이고 맹호도가 심사정 어른의 대표작이어서 재현을 하게 됐다”며 “털 하나하나를 정성껏 파고 칠하면서 조상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청송심문의 발전을 기원했다”고 했다. 250여 년을 사이에 두고 조상님과 후손이 그림을 통해 무언의 대화를 나눈 것이다. 범은 백수의 왕이자 영물로서 사된 것을 쫓아준다고 믿어 예부터 그림 소재로 많이 쓰였다. 청송 심씨 일가 여러분, 호랑이의 기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송심씨 대종회 집행부 및 종보 편집위원 일동

## 범의 해, 올해도 범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2세조·4세조 묘하에 연못 조성  
노후 찬경회관 이전 계획 수립  
여성 일가에도 문호 활짝 개방  
제2회 한마음대회 준비도 시작

### 대종회장 신년사



심대평 대종회 회장

국내외 30만 일가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가적 대사가 있는 희망찬 해이기도 하지만, 2020년부터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더욱 커진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심문(沈門)은 2019년 10월 5일 청송에서 개최한 한마음대회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가들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나마 위안을 얻습니다.

대종회를 창립한 지 50주년이던 작년에는 심문의 정체성 확립과 송조사업, 청장년층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미래세대 인재육성 등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2세조 합문지후공 묘소를 찾아 보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죽계공의 공적비를 세우고, 4세조 청성백의 연천 묘소에 안내석을 건립했으며, 선조님 묘소 관리 등 송조사업도 본격화했습니다.

조선 후기 화단을 대표하는 현재 심사정 할아버지의 명작으로 만든 2022년도 달력은 국내외 일가분들에게 금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공감 확대를 위해 인터넷홈페이지의 모바일기능을 확충하였고,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는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더욱더 활기차게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종회는 국내외 일가분들이 이러한 문중 소식을 더 빨리 소통하고 더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1가정 1종보 구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가 여러분!

올해는 송조사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성숙한 ‘일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2세조 합문지후공과 4세조 청성백 묘하에 연못을 조성하여 명성과 명당에 걸맞는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재래시장 안에 있으면서 노후화한 찬경회관은 효율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시대 흐름에 맞게 여성 일가들에게도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청장년층의 참여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연지 4년 차인 올해 ‘제2회 한마음대회’를 위한 준비에도 착수하겠습니다.

청송 심문의 역사에는 우애와 배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뿌리 내리고 있고, 그 정신은 연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문의 정체성 확립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에, 일가 간의 화합을 이루는 일에, 그리고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청심장학회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의 30만 일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내에 두루두루 축복과 행운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31일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대평

# 沈영감 심민섭



## 2022년을 맞으며—총회 회장들의 신년사

### 코로나 속에서도 송조돈목 · 일가화합 노력



심정구 인수부윤공중회 회장

일가들 도움받아 삼처(三處) 산소 관리 차질없이 수행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지나고 임인년(壬寅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일가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편안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태풍이 몰아치고 어설픈 위드 코로나 실험이 위기사항을 초래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과 건강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조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도 살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중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선조님의 춘·추향제를 부득이 총회 임원과 현지에 거주하는 소수의 일가분만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봉행하게 되어 선조님께 매우 송구스러웠습니다만, 안타깝지만 올해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가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삼처(三處) 산소 수호 관리는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의 많은 일가분이 참석하셔서 서로 화합단결하고 종사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총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종결될 것 같지 아니하오니 무엇보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인년 새해에는 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 극복 위한 한국인의 저력과 잠재력, 외국에서 더 잘 느껴



심진택 캐나다 밴쿠버 한인 회장

새해를 맞이하며 존경하는 청송심씨 대종회 어르신들과 한국 및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모든 청송심씨 일가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는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굳건하게 이겨내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민족은 힘든 시기일수록 저력과 잠재력을 더 확실하게 발휘한다는 사실을 외국인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하며 더욱 생생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에 밴쿠버로 이주한 이후 건강식품을 개발, 생산하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밴쿠버 한인회 회장직을 맡아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이곳 동포사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일가들 사이의 유대와 협력이 더욱 소중한 만큼, 저희 청송심씨 대종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 세계 청송심씨 일가 여러분이 한국 호랑이와 같은 힘차고 멋진 새해 맞이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청송심씨종보 1가정 1부 구독운동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족보수단 안내, 장학금 신청공고 및 선조 사적지 소개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심씨종보는 청송 심문(沈門)의 정보지입니다. 대종회는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참여 일가분 확대, 저명하신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연락처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 **종보 · 달력 찬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종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

2022년을 맞으며—총회 회장들의 신년사

호랑이의 원력으로 모든 잡귀와 코로나도 극복했으면



심명섭 도정공파 곡성총회 신임 회장

선산 관리와 조상의 흔적을 널리 알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

존경하는 전국의 청송심씨 일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송심씨 도정공파 곡성총회 일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을 보내고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할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일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렸듯이 호랑이의 해인 올해는 호랑이의 원력(願力)으로 모든 잡귀를 물리치고 코로나도 극복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곡성총회에서는 일가분과의 화합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송조돈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종사 가운데 선산의 묘소관리와 조상님들의 흔적을 알리는데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문명의 발달과 시대 흐름에 따라 조상을 섬기는 일이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친인척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상님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심씨가문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가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일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는 풍요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일 사복시정공파 창원총회 신임 회장

보광산 시조 춘추향제 등 여러 종사에 적극 참여한 것에 자부심

힘들었던 신축년 한해가 지나가고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사복시정공 창원총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종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복시정공 창원총회 종원님과 경남총회 일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복시정공 창원총회는 청송 보광산 시조 춘·추향제를 비롯해 대총회 이사회 등 심문의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청송심문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송조돈목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복시정공 창원총회 임원진은 앞으로도 대총회와 청송심문의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현 재난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청송심문 여러분의 새해 소망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심증영 현령공 경남총회 신임 회장

대총회 행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신축년도 역사의 한켠으로 저물었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내외 청송심문 일가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총회에 베풀어주신 사랑과 격려로 경남총회는 지난해 11월 정기총회를 끝으로 2021년 종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총회 종원과 일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아픔과 대혼란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시국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경남총회 임원진 및 전 종원은 심문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올해도 선조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송조돈목의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어디를 가더라도 경남총회의 종인이자 청송심문의 후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총회 대평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임원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남총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총회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청송심문 일가 모두가 뜻한바 소망을 이루시고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19세 이상 종원과 여성 종원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 1. 청송심씨대총회는 현재 종원 6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연 6회(1, 3, 5, 7, 9, 11월) 발간하는 종보를 통해 종중의 각종 대소사를 알리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등 종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2. 정부의 인구조사 결과 청송심씨는 국내외에 약 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총회에서는 홈페이지, 종보, 족보 수단접수, 지역총회와 파종회 등을 통해 종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종원은 6000여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종원들은 10% 정도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 청송심씨대총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만19세 이상에게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중과 연락이 없던 분들은 아래 대총회로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시어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종보를 받는 종원들께서는 가족이나 주변에 만19세 이상인 일가분이나 종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 일가들에게 대총회에 연락처를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총회 연락처 : 전화: 02-2267-7857 팩스: 02-2269-7755  
메일: set217@naver.com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30길 47 (관경회관 5층)  
2022년 1월

청송심씨대총회 회장 심 대 평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죽어서도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별이 되소서”

## 심정민 공군 소령, 민가 추락 막으려 끝까지 조종간 놓지 않고 장렬히 산화

2022년 1월 11일 심정민 소령(29·대위에서 추서)이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장렬하게 산화했다. 심 소령은 두 번이나 “탈출”을 외치고도 조종간을 놓지 않아 비행기가 민가에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심정민 소령

지난 11일 F-5E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이 14일 엄수됐다.

이날 심 소령의 소속부대였던 경기도 수원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부대장(部隊葬)으로 치러진 영결식엔 고인의 유족과 동기생, 동료 조종사, 부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서육 국방부 장관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도 이날 영결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부인 등 유족들을 위로했다. 심 소령은 결혼 1년 차의 신혼이였다.

박대준 10비행단장(준장)은 이날 영결식 조사에서 “고인은 아끼고 사랑하

던 전투기와 함께 무사귀환이란 마지막 임무를 뒤로한 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별이 되고 말았다”면서 “떠나는 고인 앞에서 가슴속 깊이 저며 오는 슬픔과 한없는 그리움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그러나 우린 이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심 소령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조국 영공수호의 숭고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한다”며 “꼭 잡은 조종간을 그만 내려놓고 그대가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 하늘에서 부디 편안히 잠드시게”라고 말했다.

심 소령과 공군사관학교 제64기 동기인 김상래 대위도 추도사를 통해 “(심 소령을) 데려간 푸른 하늘이 오늘도 우리 위에 있어 야속하게만 느껴진다”면서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너(심 소령)처럼 우리도 너의 남은 몫까지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소령은 앞서 11일 오후 1시 43분쯤 F-5E 전투기를 타고 수원기지를 이륙했으나, 기체 이상으로 1분 뒤인 오후 1시 44분쯤 기지로부터 약 8km에 위치한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소재 야산에 추락해 숨졌다.

그의 투철한 군인정신에 머리가 숙여진다. 심 소령의 영결식을 보도한 1월 14일 자 뉴스1 기사를 소개하며 심 소령의 명복을 빈다.



경기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내에서 열린 고 심정민 소령의 영결식(1월 14일)

공군이 추락 기체에서 회수한 비행 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고 당시 상황을 따르면 심 소령이 탄 F-5E 전투기는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한 뒤 상승과 함께 좌측으로 선회하던 중 기체 좌우 엔진의 화재 경고등이 켜졌고 이후 조종계통에서도 이상이 발생해 기수가 급강하했다.

심 소령은 지상 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알린 뒤 2차례 “탈출(Ejection)”을 선언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제로 비상탈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군은 “당시 전투기 진

행방향에 민가가 여러 채 있었다”며 “심 소령이 이를 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채 조종간을 끝까지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회피기동 중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소령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 문재인 대통령 “군인정신 귀감”

문재인 대통령도 “고인의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 대중회·청심회, 고 심 소령 부친 만나 위로

대중회와 청심회는 1월 24일 고 심정민 소령의 아버지인 심길태 씨를 대중회 사무실에서 만나 위로했다.

심대평 대중회장은 이 자리에 “400여 가구의 민가를 덮칠뻔한 대형사고를 불과 10여 초만에 송고한 군인정신과 애국심을 발휘해 큰 희생을 막음으로써 심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고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심문 모두가 참군인의 귀감으로 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위로했다. 또 “강재구 소령처럼 심정민 소령의 애국심과 희생정신도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후속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심회(회장 심중식)도 “송고한 국가관,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 주어 슬픈

동시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의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심 소령의 부친 심길태 씨는 “60 평생을 살면서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청송심문 문중을 잘 모르고 지냈다. 대중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중회에 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정민이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중에 관심을 표시하길래 심문족보를 주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앞으로 심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많이 생각해 보겠다. 일가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대중회와 청심회는 이날 심길태 씨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심성식 청수회 광주전남위원장도 조의금을 보내왔다.



왼쪽부터 심수지 청심회 재무, 고 심 소령 아버지 심길태 씨,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고 심 소령의 아버지인 심길태 씨(왼쪽 줄 가장 안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심대평 대중회 회장(가운데)과 간부들

자랑스러운 일가 -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초대회장

# 180개국 750만 해외동포를 아우르는 조직의 수장이 되다

## 지난해 10월 초대회장에... 유대인 조직처럼 영향력 있는 단체로 키우는 게 꿈

그 옛날 해외로 나간 한인들은 외로웠다. 모국이 그들을 돌봐줄 만큼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인의 기상을 잃지 않고 끈끈하게 살아왔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한인들의 현지 영향력도 커지면서 모국은 해외동포를, 해외동포는 모국을 생각하게 됐다.

해외와 국내에서 결성한 각종 한인회와 동포 조직들이 소통의 역할을 했다. 드디어 2021년 10월 세계 각 지역의 한인회 조직을 하나로 아우르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가 발족했다. 그 조직의 초대회장에 오른 심상만 회장을 만나 연합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 심상만 회장이 걸어온 길

1997년 1월 인도 첸나이의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현장의 자동화라인 공사를 맡으며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했다. 낯선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점차 인도에 익숙해지며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라인 공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건설공사, 레미콘 사업까지도 운영하게 되었다. ‘돈을 좇지 말고 일을 좇으라’는 좌우명과 멀리 보는 끈기로 성공을 거둔 것 같다고 자평한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인도 첸나이 한인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 인도지회장, 민주평통 인도지회장을 거쳐 2년 동안 인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이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으로 3년,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으로 3년을 일했고, 2020년과 2021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을 맡은 후, 2021년 10월 6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초대회장에 올랐다.

### -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와 500여 개 지역한인회를 연결해 180개국 750만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재외 한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모국과의 문화, 경제 교류 및 협력활동을 통해 단합과 화합을 모색하고, 전 세계 시민과 함께 흥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단체입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약칭 ‘세한총연’, ‘WAKA’(The World Assembly of Korean Associations)로 부른다. 2021년 초부터 재외동포재단과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장이 10여 차례 화상회의 등을 거쳐 9월 5일 발기인총회를 열었고,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 중인 10월 6일 서울 워커히 호텔 비스타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 초대회장에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세한총연은 지난해 12월 30일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았다.

### - 초대회장으로서 어떤 일에 중점을 둘 생각인지.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재외동포 중 209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힘! 선거등록이 그 첫걸음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외동포 투표 50만 표 달성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립 후 3개월이 지난 1월 하순 현재, 10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250여 개 한인회가 세한총연에 가입했고, 올 상반기 중에는 400개 이상의 한인회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요.

이런 적극적인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 세한총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법적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조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한인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홈페이지와 웹매거진 (www. Waka2021.org)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뭉치도록 하고 차세대 영재개발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데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 세한총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법적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조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한인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미 홈페이지와 웹매거진 (www. Waka2021.org)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뭉치도록 하고 차세대 영재개발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데도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 -궁극적인 모델은.

“이런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한총연을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단체, 재외동포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 키움으로써 유대인

의 World Jewish Congress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대한 조직과 자금력을 가진 World Jewish Congress를 통해 미국과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750만 동포도 오랜 이민의 역사 속에서 일궈낸 귀한 역량을 하나로 묶는다면 영향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평상시 청송심씨에 대한 생각은.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교육자의 자손이자 2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의 친오빠이다).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님이셨고 큰댁 아저씨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국민학교를 지어 교육청에 기부도 하셨습니다. 선조 중에는 영의정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조선 초기부터 청송심씨가 역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심씨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만 회장이 지난해 10월 6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후 연합회 깃발을 흔들고 있다.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심상만 회장

## 심 씨 아버지의 아들 - 심 씨 어머니의 딸, 행정고시 합격자로 만나다

## “청송심문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 훌륭한 공복으로 보답”

고시는 시험 중의 시험이다. 그래서 합격의 기쁨도 각별하고 합격자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종보는 202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심석호 씨(37)와 2021년에 합격한 구유미 씨(29)를 서울의 한 음식점으로 초대해 고시 준비에서 합격까지

의 과정과 공무원으로서의 포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등을 들어봤다. 구 씨는 어머니가 심 씨이다. 종보는 대종회의 열린 종사(宗事)에 호응하기 위해 이번 대담을 마련했다.



## 심석호(沈石祜)

1985년 경기 하남에서 심기홍(沈基弘) 김호숙(金昊淑) 씨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하남초, 하남 신장중, 서울 한영외고 독어과를 거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20년 겨울 일반행정 지역직(서울)에 합격해 2021년 5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연수를 받았다. 9월에 시보로 정식발령을 받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에서 2개월간 중앙연수를 받았으며 11월부터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8년 결혼해 남매를 두고 있다.

## -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심석호**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선생님이나 공무원이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전공을 살리되 사기업보다 공공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하남시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결정과 판단이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하남시 광역화장장 사건), 공직에 입문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구유미** “소방공무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동료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대학 2학년에 올라가며 행정학과를 선택하면서 행정고시를 꿈꿨습니다.”

## - 일반행정 지방직을 선택한 이유는.

**구** “전국직을 고수하다가 2021년에 경남직으로 바꾼 데는 외가(이반성종회)의 영향이 컸습니다. 경남 진주의 외갓집은 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느끼던 곳인데 어린 시절의 북적거리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역소멸위기를 체감했습니다. 외가만이 아니라 경남은 이미 11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남의 활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심** “처음엔 경제학을 전공했기에 재경직을 선택했으나 결혼한 후 세종이 아니라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반행정 서울직으로 바꿨습니다.”

## - 합격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 “매년 힘들던 겨울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원해주신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어 뿌듯했고요. 합격 이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곳에서 제 합격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인 제 의견도 물어봐 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 합격 이후 가장 자주 받은 질문은.

**심** “어떻게 결혼생활과 고시를 병행하면서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부에만 매진해도 쉽지 않은 시험인데 고시 공부 중 결혼도 했고 아이까지 있던 케이스는 저 혼자였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 합격했을 때 가족의 반응은 어땠나요.

**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모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곤 부모님이 우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니도 합격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동생들로부터 전해 듣고 ‘제가 그동안 부모님께 참으로 불효를 저질렀구나’라는 것과 ‘이제라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 “합격 소식을 전화로 전해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동네에 플래카드를 걸어주신 덕분에 청송심씨 대종회와도 연락이 닿게 되어, 사랑하는 두 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외할머니께서 ‘공직자가 되거든 아는 것이 많다고 자만하지 말고, 상대가 누구인



1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있는 달개비에서 만난 심석호 씨(왼쪽)와 구유미 씨. 이들은 인터뷰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얘기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모두 우셨다는 것, 능력 있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청송심문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었다.



## 구유미(具由美)

1993년 경남 마산에서 구광진(具光鎭) 심미정(沈美貞) 씨의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마산 신월초, 마산여중, 경북 구미의 경북외고를 거쳐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다. 2021년 겨울 일반행정 지역직(경남)에 합격했다. 올 5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연수원)에 입교할 예정이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합격자가 동시에 입교할 수 있을지는 미정. 연수가 끝나면 2개월 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뒤 11월부터 경상남도에서 본격적인 공직생활을 시작한다.

가를 따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대하라’고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석호 씨는 경제, 실업문제, 신산업을 꼽았고, 유미 씨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이라고 했다.

## - 어떤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구** “제 손에서 시작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심** “전문적이고 책임감 강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 - 평소 청송심씨에 대해 듣거나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구** “청송 주산지(注山池)의 물안개 낀 장관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청송을 본관으로 했으니 여러 정승과 왕비까지 배출한 가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외손인 저를 초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청송심씨의 포용성을 느꼈으며 저 역시 청송심씨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청송심씨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감 선생님이 ‘어디 심씨냐’고 물으셔서 ‘청송심씨’라고 대답했더니 ‘양반 집안’이라고 해서 뿌듯했습니다. 청송심씨에 대해 막연히 이야기로만 듣다가 합격 후 훌륭한 달력도 보내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셔서 청송심씨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취재=심규선 종보편집장, 사진=심홍섭 사진작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23)

# 임진왜란 때 객재우 장군 선봉장으로 혁혁한 공

## 의병 일으켜 곳곳에서 승리하고 진주성도 구원한 대승(大承)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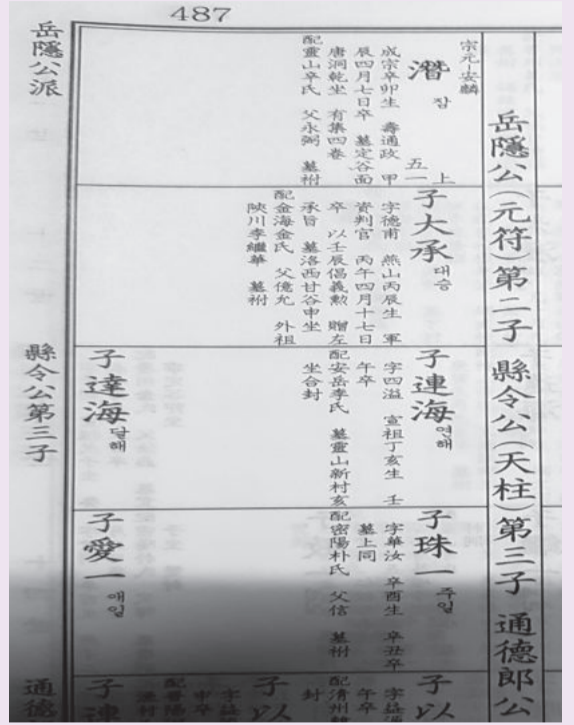
沈厚燮  
아동문학가 · 대구문인협회장  
一의 전황보고서가 실려 있다. 이 전황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현보(賢輔)야, 너는 옳은 일을 위해 힘든 일을 감내해낼 수 있겠니? 즉 대의(大義)를 위해 자신을 내던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야?

선조실록(宣祖實錄) 제33권 선조 25년 12월 5일 자에는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관찰사로 활동한 김성일(金誠一)의 전황보고서가 실려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운영하는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심대승(沈大承), 1556년(명종 11)~1606년(선조 39),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덕보(德浦), 호는 이안(伊安).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훈련원판관(訓鍊院判官)·군자감정(軍資監正) 등을 지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객재우(郭再祐)와 박필(朴弼) 등 의령(宜寧) 고을의 장사들과 친족, 하인 등을 모아 의병의 깃발을 치켜들었다. 진주 싸움 때도 구원군의 선봉장으로 참가하였다. 좌승지(左承旨)의 증직을 받았다. [참고문헌] 宣廟中興誌



대종보(2000년 간행)에 실려 있는 대승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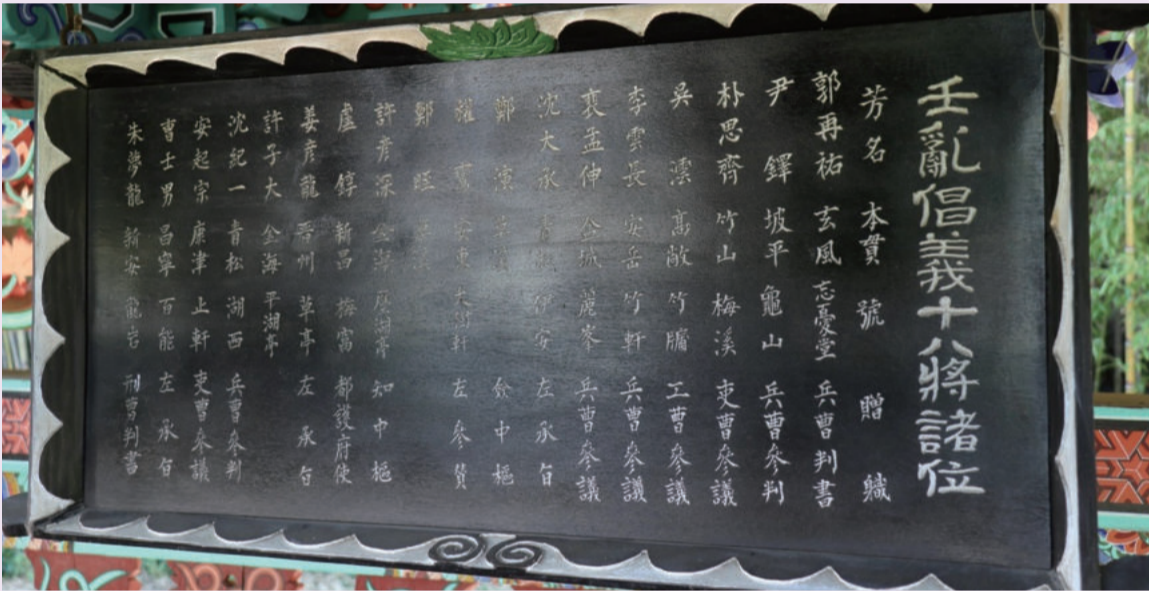
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대승 할아버지는 ‘선봉장’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승 할아버지에 대한 충의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자는 덕보(德浦)요 호는 이안(伊安)이며 의령(宜寧)에서 살았다. 그는 훈련원 판관과 군자감정(軍資監正) 등을 역임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객재우 의병부대의 선봉장(先鋒將)으로서 정진과 장현 등지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그는 좌승지(左承旨)의 증직을 받았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나셨어. 모든 재산을 내어 의병들에게 옷을 해 입히고, 먹을 것도 마련해 주었어. 그리하여 마침내 나라를 지켜내고 역사에 기록되신 거야.

우리 대승 할아버지는 악은공의 후예로 현령공과 인데 12세손이란다.

그래,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지조 높은 행동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지. 너도 우리 선조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본받도록 노력하렴.



충의사에 모신 임란창의(壬亂倡義) 18장군의 명판.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가 대승 할아버지. 16번째에는 심기일(沈紀一) 할아버지의 이름도 들어 있다.

지난 10월 5일에 적이 1만 명을 셋으로 나누어 곧바로 진주(晉州)를 침범하였습니다.(중간 줄임) 이때에 이르러 윤락은 2백여 명을 거느리고, 정언충은 1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변에서 모였는데, 마현(馬峴)에서 적과 부딪쳐 오랫동안 크게 싸우다 군사들이 깨달아 돌아왔습니다. 객재우는 선봉장 심대승(沈大昇)으로 하여금 북산(北山)에 올라가 햇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방포(放砲)하면서 성중에다 대고 크게 외치게 하기를 ‘전라도의 원병(援兵) 1만여 명과 의령(宜寧)의 홍의 장군(紅衣將軍)이 합세하여 내일 아침에 와서 적을 죽이기로 하였다.’ 하니, 성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크게 외치면서 서로 호응하였습니다.(아래 줄임)

이로 보면 임진왜란 때에 우리 대승(大承) 할아버지는 의병장으로 용맹하게 활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단다. 위의 실록에는 ‘大昇’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와 객재우 장군 신도비 등에는 ‘大承’으로 되어 있다. 또 ‘大升’이라는 기록도 보이는데, 이는 우리 대승 할아버지의 활동상이 너무 많다 보니 기록하는 사람이 각각 들은 대로 짐작하여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로 보면 우리 대승 할아버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홍의장군 객재우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그 선봉장(先鋒將)으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당시 의병의 선봉장을 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용맹하고 지략도 뛰어나야 했어.

이 무렵 왜적들은 군량미를 조달하려고 호남지방으로 나아가려 하였어. 진주성(晉州城)은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왜적들은 진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격하였어.

성(城)이 위태로워지자 우리 대승 할아버지도 객재우 장군과 함께 진주성으로 달려가셨어. 그러나 둘레에 적들이 많이 깔려있어서 함부로 싸울 수가 없었어. 그리하여 객재우는 우리 대승 할아버지와 함께 우선 심리전(心理戰)을 펼치기로 하였어. 그것은 위의 김성일 전황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야.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우리 대승 할아버지는 상황 판단력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또 많은 의병 중에서 이러한 중책을 받으신 것을 보면 주위로부터 깊이 신임을 받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경남 의령군에 가면 의령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의사(忠翼祀)’라는 사당



KBS 사극 <징비록>에 등장한 대승 할아버지

선조의 숨결을 찾아서

# 조선 건국 참여 않고 두문동 들어간 악은공(심원부, 1332?~1392?)

## 후손들 끝내 묘소 찾지 못하자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에 재실과 신도비 세워



沈載錫  
역사학자

### 1. 악은공 신도비와 설단 건립 배경

악은공 심원부 선조님은 불사이군을 명분삼아 개성의 두문동에 들어가 생을 마감한 고려의 충신으로 '두문동 72현'으로 불린다.

청송심문의 중흥조인 청성백 심덕부의 아우로 고려 말에 전리판서(정3품)를 지냈다. 악은공 후손들은 경상북도 청송을 중심으로 안동과 경상남도 진주 등지에 폭넓게 세거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순절한 벽절공 심정,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순절한 송호 심자광, 한말 의병장인 소류 심성지 선조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 2. 신도비가 묘사한 악은공

#### 1) 신도비 요약

고려 말에 조선 건국을 반대하며 개성의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간 분이 많았는데, 악은공 심원부 공은 그중에 한 분이다. 악은공은 초연히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새 왕조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공이 호를 악은(岳隱)이라 한 것은 '송악의 은자' 라는 뜻이다.

악은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어떤 아이가 거울을 쥐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있다” 고 하자, 악은공이 즉시 거울을 비추어 보고 “이는 하늘의 해가 여기에 비추어 두 개로 보이는 것이지 어찌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있느냐” 고 말했다. 이를 본 어른들이 모두 감탄하였다고 한다.

공은 고려 말의 대학자 이제현(李齊賢)의 제자였으며, 정몽주와 친하게 지냈다. 공은 벼



김항(1896~1978)

### 2) 신도비를 쓴 김항(金桴, 1896~1978)

김항 선생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본관은 문소(의성)이며, 호가 중재(重齋)여서 '중재선생'으로 유명하다. 광종석의 문인으로, 조선의 마지막 대유학자이다. 어머니는 청송심씨로 심구택(沈龜澤)의 딸이다.

### 3. 악은공과 청성백(심덕부) 형제의 큰 공; 조부(심연)의 묘소를 산청에서 익산으로 천장한 일

두 형제는 부친 청화부원군의 유언을 받들어 심연 할아버지의 묘소를 경남 산청에서 전북 함열로 이장했다. 천리 길을 마다 않고 천장하였으니 그 수고와 노력이 가상하고, 경비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1377년). 이장 후 임진왜란을 전후해 후손들이 흩어지면서 묘소를 실전(失傳)하였으나, 임피에 거주하는 죽계공 심규(沈圭)가 심연 묘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문중이 합심하여 10년의 소송 끝에 묘소를 다시 찾았다. 담양군수 심중량(沈仲良) 등의 수고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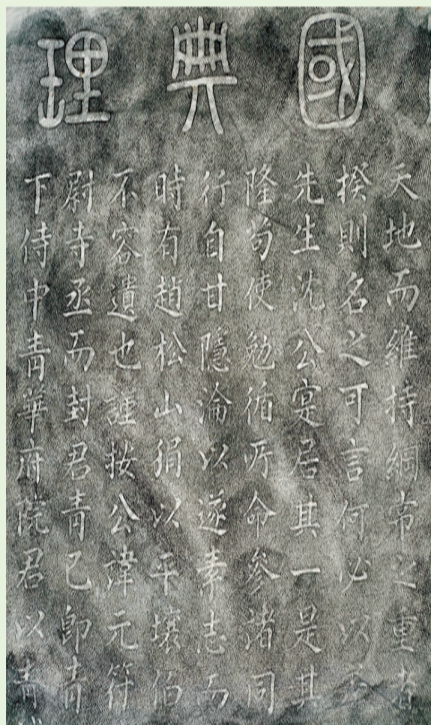
### 4. 악은공이 남긴 시 <입두문동(入杜門洞)>

악은공은 고모부인 민안부와 함께 고려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두문동에 들어가면서 시를 지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 시에서 악은공은 신도비에도 있듯 “나의 생사는 너희들은 알지 못할 것이니 떠나간 날을 죽은 날로 삼으라”고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지난날의 조정 관대(冠帶)를 허리에 둘러매고 슬피 탄식하며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노라”며 망국의 한을 읊었다.

고려 말 조선 초기는 명운이 다한 고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다. 형인 청성백 심덕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송심씨의 중흥조가 되었다. 아우인 악은공 심원부는 성리학의 신봉자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개를 지켰다. 형제간 길은 달랐으나 각자의 신념에 충실했으며, 결국 두 사람 모두 청사에 이름을 남겼다.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에 있는 악은공 재실 경의재(2021년 5월 7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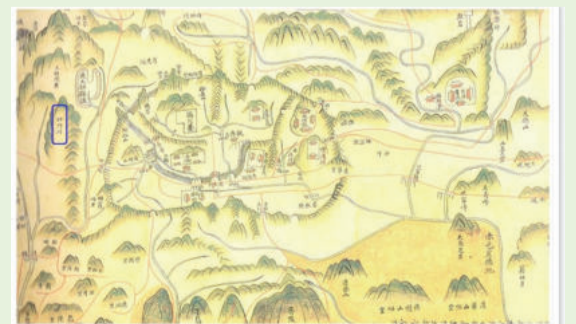


악은공 신도비(2021년 5월 7일 탁본)

악은공은 두문동에 들어간 이래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 묘소를 찾을 길이 없었다. 1971년에는 대종회(회장 聖澤)에서 악은공 묘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악은공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갔던 고모부 민안부의 묘소가 경남 산청군에 있으므로 악은공의 묘소도 부근의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동 심판서의 묘까지 열어보았으나(1972.3.6), 고증할 유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선조를 추모하는데, 묘소와 단소(壇所)가 다를 바 없다는 중론에 따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에 악은공의 단소와 신도비를 세우기로 하였고(1973.6.10), 우여곡절 끝에 준공식을 마쳤다(1983.5.8).

슬이 전리판서에 이르렀으며, 고려왕조가 망하자 72명의 동지와 개성의 두문동에 들어갔다. 고모부인 민안부 선생과 함께 집을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생사를 너희들은 알지 못할 것이니 떠나간 날을 죽은 날로 삼으라” 고 하였다. 공이 떠난 이후 어떠한 행적도 알 수 없고 역사책에도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

악은 심원부 공이 지킨 높은 의리와 정절은 목은 이색, 야은 길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것이다. 다만 공에 관한 자료들이 없으니 그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원문에서 중간 생략 표시 없이 핵심 부분만을 옮겨 연결했다)



'해동지도'에 있는 고려의 수도 개경. 왕궁인 만월대 왼쪽에 악은공 심원부 선조께서 들어가 숨은 '두문동(杜門洞)'이 보인다.



종회탐방 — 석촌공종회를 찾아서

# 충효, 선비정신, 형제애는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 4세 악은공(휘 元符)- 5세 영동정공(휘 天濶)- 6세 석촌공(휘 孝尙) 종회



석촌공 묘비 앞에 선 종회 일가들.

### 1. '충효'와 '선비정신'에 빛나는 가문

석촌공종회는 악은공(岳隱公)의 장손인 6세조 석촌공(石村公, 휘 효상 孝尙) 후손들의 모임이다. 석촌공은 경남 산청에서 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촌이라는 호는 산청군 금서면 특리의 옛 이름인 석탑촌에서 따왔다고 한다.

석촌공이 청송 심씨의 본향이 된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에 터를 잡은 것은 1400년대로 추정한다. 이는 석촌공께서 두문동에 들어가신 조부 악은공을 찾아 나서면서 아우 만우공(晩愚公, 휘 효연 孝淵·1410년생)을 청송으로 돌려보내며 남긴 시(詩) '환거청송(遷去青松)'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석촌공 후손들은 악은공께서 남긴 선훈불사(先訓不仕) 유훈을 받들어 대대손손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본향에서 선영을 돌보며 학문을 익히고 문집을 발간했다. 6세 석촌공의 '석촌일고', 7세 농천공(휘 태산)의 '월명유고', 8세 월헌공(휘 손)의 '월헌문집', 9세 추당공(휘 필륜)의 '추당일고', 10세 도곡공(휘 학령)의 '도곡일고', 11세 벽절공(휘 청)의 '벽절유고' 등이 전해 오고 있다. 그 후에도 소류공(휘 성지)의 '소류문집', 천은공(휘 능창)의 '천은문집'을 비롯해 '신암문집'(의성), '성산문집'(상각), '인재문집'(상촌), '송석문집'(동택), '좌송문집'(주택), '노산문집'(의식) 등이 남아 있다. 특히 석촌공의 장자 농천공(弄泉公 휘 태산 太山·부사과)은 당대의 문인 점필재 김종직 작품에 <청송의 찬경루에 차운하다> <청송부에서 자다> 등 두 편의 시(詩)를 남겼다.

또 공의 5세손 벽절공(碧節公, 휘 淸)은 임진왜란 때 청송의병장을, 13세손 소류공(小流公, 휘 誠)은 을미의병 때 청송의진의 의병대장을 맡아 큰 전공을 올렸다. 그리고 조선 후기 250여 년간 만석꾼인 청송심부자 호택(琥澤),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원장을 지낸 유학자 상광(相光) 등도 이름을 남겼다.

이처럼 석촌공 후손들은 충효와 선비정신을 숭상수범하는 가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왔다.

### 2. 5세조 영동정공-현령공-둔재공 3형제, 경의재 건립 앞장, 2세조 봉익대부공(휘 晟)- 4세조 정안공(휘 德符) 후손들 적극 동참

석촌공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며 두문동으로 들어가신 악은공을 찾아 아버지 영동정공(令同正公, 휘 天濶)과 함께 두문동으로 가신 후 소식이 끊겨 묘소조차 찾을 수 없다. 석촌공의 생몰년과 관작을 알지 못하는 이유이다.

끝내 악은공, 영동정공, 석촌공의 3대(代) 할아버지 묘소를 찾지 못하자 후손들은 1982년 청송 심문의 본향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입구에 3대(代) 할아버지의 재각인 경의재(부지 937평)를 건립했다. 경의재 건립은 악은공 장남 영동정공, 차남 현령공, 3남 둔재공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다.

그러자 대종회(당시 회장 성택)를 비롯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악은공 종조부 2세조 봉익대부공(휘 晟) 후손과 악은공 친형 4세조 정안공(휘 德符) 후손들도 적극 동참해 웅장한 경의재를 준공하게 되었다.

석촌공 후손들은 비록 3대(代) 할아버지의 발자취는 찾지 못했지만, 국내외 심문의 성원과 협조로 경의재를 건립한 것에 늘 고마워하며, 시조님 묘소 관리와 제향 봉행, 찬경루와 만세루, 운봉관 등 사적지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3. '환거청송'에 담긴 '형제 우애'는 후손들의 자랑

4세조 정안공과 악은공의 '형제 우애'는 청송 심씨의 자랑이지만, 6세조 석촌공-만우공-

군사공 '3형제 우애'도 이에 못지않다. 특히 석촌공께서 남기신 시(詩) '환거청송'을 읽어보면 아우 만우공에 대한 짙은 애정을 느낄 수 있다.

落葉滿程時 낙엽이 길거리 가득할 제  
 吾家兄弟離 우리 집 형제 이별하는가  
 送君還古土 동생을 미리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白首看雲憐 머리칼이 흰 형은 구름을  
 보며 아우를 생각하노라

두 형제의 후손들이 결성한 청송청장년회는 선조님 춘추향제 봉행에 솔선해 참여하고 있고, 청송 거주 일가 어른을 한자리에 모시는 '경친다짐대회'는 청송의 자랑거리이다.

석촌공종회는 석촌공 할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고 숭조선양을 위해 1991년 석촌공과보를 펴냈다. 현재 석촌공종회는 상조 회장(대유토건 회장)을 비롯해 극택, 상한, 광부 천연기업 회장, 상억 전 국회보좌관, 원환 전 삼성전자 부사장, 한섭 신원전설 대표, 학섭 진행위터웨이 대표, 재일 전 (썬)이마트 에브리데이 사장, 재우 태봉 대표(이상 서울), 상점 삼성지적측량공사 대표, 호웅 전국농업 기술자협회 대구연합회 회장, 상박 전 군위 부군수, 후섭 대구문인협회 회장, 준섭 경운대 교수, 중섭 석촌공종회 총무(이상 대구), 재창 안동대 교수, 상철 관장, 광섭 악은공종회 총무, 상휴 청송군의회 부의장, 상벽 이사, 훈섭 시조 묘소 유사, 장섭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재오 송소고택 장주, 남규 전 청송군 과장(이상 청송)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덕천에서 정환(국무총리실), 인보(감사원), 민준(기획재정부) 등 3명의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날 취재에 응한 석촌공종회 임원단은 "선조님 숭조사업과 일가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기 위해 종회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재=심준섭 편집위원(경운대 교수), 심상벽(청송)>



청송심씨 본향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입구에는 악은공, 영동정공, 석촌공 3대를 모시는 경의재가 있다.

일가기업 탐방 — 서울 가락동 (주)그로우건설

## 구조물 안전 진단과 처방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책기업 심현보 회장 1994년 ‘안풍건설’로 시작…신기술 개발과 특허로 관련 업계 견인



심현보 (주)그로우건설 회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저물어 가던 12월의 끝자락에 서울 가락동의 (주)그로우건설을 찾았다. 심현보 회장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맞이해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깨끗하게 빗나갔다. 심회장은 마치 패션회사의 CEO처럼 캐주얼 복장에 스니커즈를 신고 나왔다. 그런 모습에서 편안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1994년 ‘안풍건설’로 시작한 (주)그로우건설은 시설물 관리 특허와 토목 안전진단 연구를 통해 구조물의 수명과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기업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깨지 않고도 보수할 수 있는 모르타르 기술과 강관 현교의 상부 구조물 인상법 등 신기술 분야에서 13개의 특허와 4건의 출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부설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주)그로우건설은 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을 하는 국책사업기관이다. 그래서 국토부지정 신기술시공시스템,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기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터널 및 지반 안정화, 라멘(Rahmen) 교량, 가설교량, 내진보강, 사면보강공사, 교량보수공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안전 진단을 통해 준공 이후의 교량·터널·항만 부두·하수도 등 콘크리트구조물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수하는 역할은 인간으로 치면 의사의 역할



회장실 벽면에 게시한 신기술과 특허등록 13개

과 같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을 치료하는 의술이 나날이 발전하듯 구조물의 보수, 보강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주)그로우건설은 단순 보수가 아닌 부식 방지와 중성화 연장법을 통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수명도 연장하는 신기술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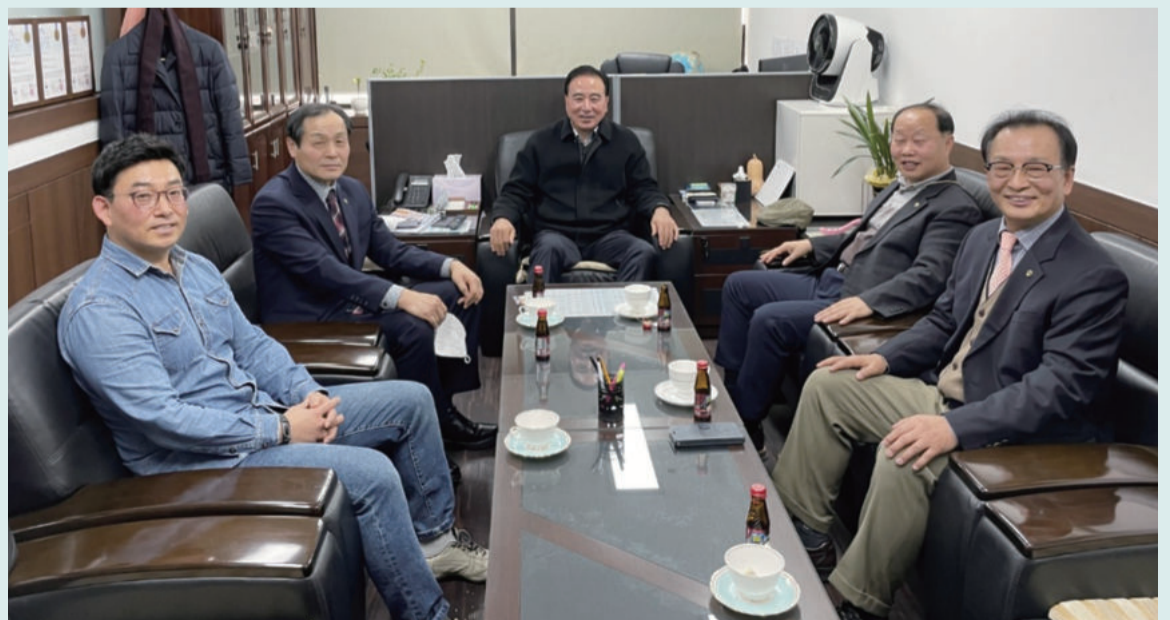
심현보 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하수도에서 항만까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회장의 이런 자신감은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그로우건설이 지금껏 해온 공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시와 여러 구청이 발주한 한강교량 내진보강공사, 한남대교 보수공사, 지하철 4호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제8공구), 동광로19길 주변의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가야선 사상~가야간 주령터널(하) 개량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광주전남본부 관내 구조물 개량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의암댐 웨어 및 수중부 단면보수공사, 포천시가 발주한 (구)신북대교 정비공사, 부천시가 발주한 송내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국도 23호선 차령교 보수공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지방도 424호 석곡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같은 공사들이 있다.

스니커즈를 신고 초면의 일가를 맞이해준 심현보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빈틈이 없는 일처리 방식을 느낄 수 있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는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길 기대해 본다.

(취재 = 심흥섭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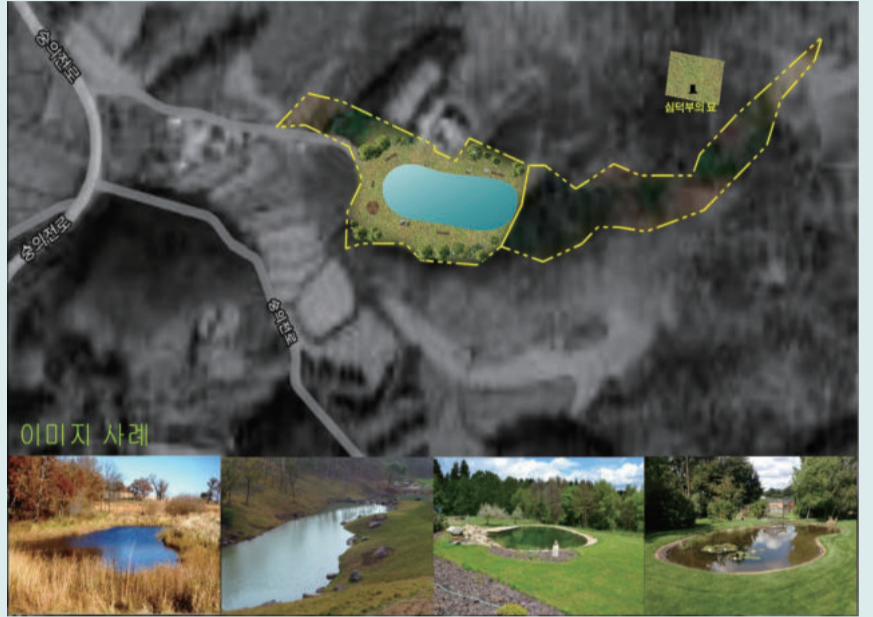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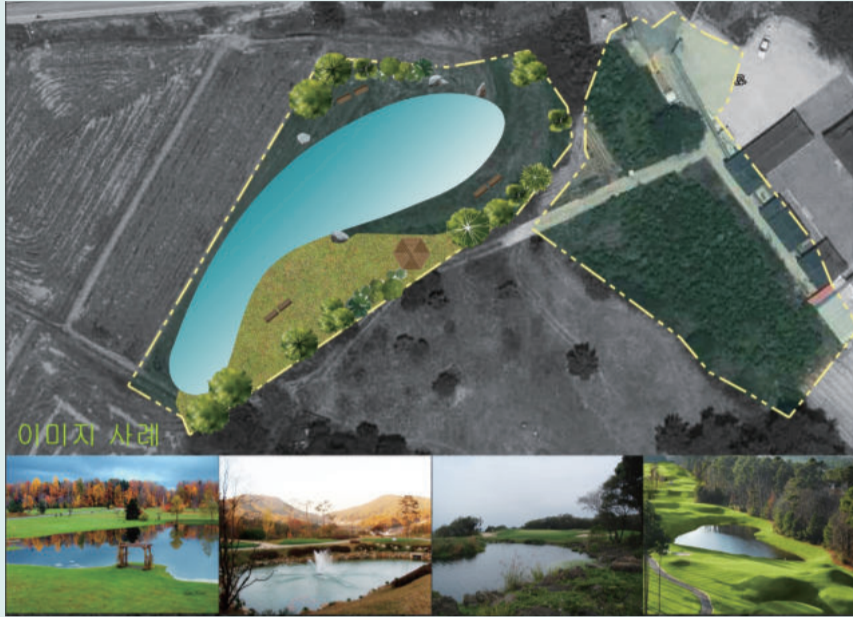
왼쪽부터 심흥섭 취재기자, 심언테 대종회 총무이사, 심현보 회장, 심상익 문화이사, 심규정 재무이사.

대중회 활동 이모저모

올해 2세조와 4세조 묘소 정리하고 연못도 설치

2세조 합문지후공(휘 淵) 합열 묘하 연못 조성(조감도)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연천 묘하 연못조성 (조감도)



심상조 청심장학회 이사에 기념 액자 전달(11월 24일)



왼쪽부터 심상억 청심장학회 운영위원(문화이사), 심재만 청심장학회 이사, 심대평 청심장학회 이사(대중회 회장), 심상조 청심장학회 이사,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상돈 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예방(11월 27일)



앞줄 왼쪽부터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민 임실군수,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심상억 문화이사,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심재운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심재열 전북총회 총무, 심상돈 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심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심성식 청수회 광주전남위원장.

전남 장성 양계사 참배; 4세조 청성백(휘 德符), 5세조 지성주사공(휘 繼年), 6세조 애암공(휘 涓) 배향(11월 27일)



왼쪽부터 심성식 청수회 광주전남위원장, 심재열 전북총회 총무,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심언태 대중회 총무이사, 심해철 이사,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정섭 장성돈목종회 회장, 심대섭 지성주사공종회 회장 겸 대중회 부회장, 심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대중회-광주 송암총회 전북 임실 솔로몬농장 방문(1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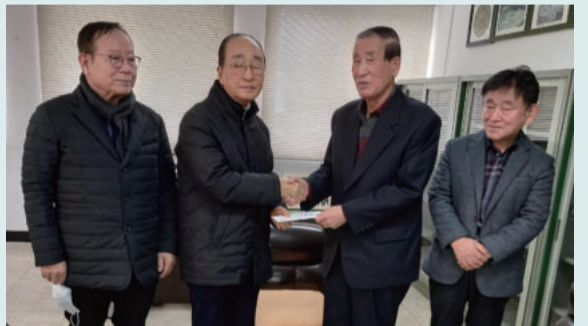
앞줄 왼쪽부터 심재경 송암총회 이사, 심한철 전북 부위원장, 심상억 문화이사, 심재덕 송암총회 이사,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민 임실군수, 심화섭 송암총회 이사, 심향보 전북총회 재무, 심관섭 전북위원장, 둘째줄 왼쪽부터 심병희 송암총회 이사, 심해철 이사, 심재운 송암총회 회장, 심언태 대중회 총무이사, 심성식 광주전남위원장, 심윤섭 금당산총회 회장, 심재풍 송암총회 이사, 심재혁 송암총회 이사, 심재열 전북총회 총무, 셋째줄 왼쪽부터 심기섭 송암총회 이사,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심상돈 전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심재운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심동선 두암공 종손, 심철웅 전북위원회 재무, 심재만 이사, 심문섭 전북위원회 총무.

김포 지파총회 회장 모임(12월 9일)



왼쪽부터 심좌보 인천총회 총무, 심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심양섭 사인공총회 회장, 심재창 이경공총회 회장, 심상열 판관공총회 회장.

이경공총회 대중회에 장학금 전달(12월 15일)



왼쪽부터 심재곤 이경공총회 재무이사,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재창 이경공총회 회장, 심준섭 이경공총회 총무이사.

우리총회 제주도에서 송년모임(12월 9~11일)



왼쪽부터 심재성 수찬공총회 총무, 심정환 이지사목원 대표,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총회 회장,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재섭 우리총회 회장, 심정행, 심경진 우리총회 사무총장, 심국향 두머니물농원 대표, 심웅근 사진작가, 심재만 전 화성시청 국장

청송 거대의 7세조 농천재(휘 太山) 답사(12월 18일)



왼쪽부터 심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심상철 청송친경회관 관장, 심봉섭 심성지의병장 종손, 심상벽 석촌공총회 이사, 심상정 이사, 심상조 석촌공총회 회장, 심상휴 청송군의회 부의장, 심상박 전 군위 부군수, 심남규 석촌공총회 총무, 심준섭 경운대 교수 (사진 = 심준섭 석촌공총회 대구총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예방(1월 10일)



왼쪽부터 심상돈 스타키보청기 회장, 심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심재운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 심재웅 대산타워 대표이사,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조 대우토건 회장, 심충식 선광 대표이사,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수상... 저술... 취임... 탁월한 업적으로 곳곳에서 가문 빛내

심태섭

헌법재판소 주사 우수대민공무원(12월 31일)



심희재

방송인 한류문화대상(12월 20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2021-2022년 연말 연시 인사

- 〈인천광역시〉 (12월 15일자)  
◇4급 승진 ▲주거재생과 심일수
- 〈중소기업중앙회〉 (12월 20일자)  
◇부서장 전보 ▲투자전략실장 심상욱
- 〈부산광역시〉 (1월 1일자)  
◇3급 전보 ▲기획관 심재민
- 〈강원도〉 (1월 1일자)  
◇실국장급 승진·전보 ▲중국통상과장 심재한

- 〈충청남도〉 (1월 1일자)  
◇4급 전보 ▲세정과장 심준형
- 〈전주시〉 (1월 1일자)  
◇사무관 전보 ▲광덕면장 심상욱

- 〈아산시〉 (1월 1일자)  
◇사무관 전보 ▲탕정면장 심흥섭

- 〈청송군〉 (1월 1일자)  
◇승진 ▲심효섭 기획감사실  
◇전보 ▲심부섭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심수 문화체육과 ▲심명교 종합시설관리사업소

- 〈한국전력〉 (11월15일자)  
◇본사 처(실)장 ▲재무처장 심광섭

- 〈한국남부발전〉 (12월 6일자)  
▲사업본부장 심재원

- 〈한국도로공사〉 (12월 14일자)  
▲홍천지사장 심보선

- 〈광주광역시〉(1월 1일자)  
◇과장급 전보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 심재봉

- 〈울산광역시〉(1월 1일자)  
◇5급 승진 ▲어르신복지과 심수연

- 〈대전 중구〉 (1월 1일자)  
◇5급 승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심현주

- 〈대전 유성구〉 (1월 1일자)  
◇5급 전보 ▲청소행정과장 심창현

- 〈경기 양주시〉 (1월 1일자)  
◇4급 전보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중

- 〈충남 보령시〉(1월 1일자)  
◇6급 전보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심기전

- 〈충남 청양군〉(1월 1일자)  
◇5급 승진·전보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1월 1일자)  
◇6급 승진 ▲매곡고 심수정  
◇6급 전보 ▲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 심태형  
▲강북지원청 심지영 심연정 ▲동천초 심현모

- 〈한국무역협회〉 (1월 1일자)  
◇실장 전보 ▲DX추진실장 심윤섭  
▲인천지역본부장 심준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월 1일자)  
◇부서장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심상운

- 〈우리금융·우리은행〉 (1월 1일자)  
◇우리은행 〈영업그룹장〉 ▲광적 심재희 ▲문래동 금융센터 심종원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심근섭

〈13면으로 이어짐〉

심가용



송실대 교수  
BRIC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1월 11일)

심재석 박사, 13정승과 심연 관련 책 출간



심재석 박사가 지난해 말 《조선시대 청송심씨 13정승 약사》와 《고려말 沈淵의 유적과 묘역의 수호 연구》라는 연구서를 연이어 펴냈다.

《13정승》은 청송신문의 자랑인 13정승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최초의 책이다. 각 정승의 유적지를 직접 찾아가 새로운 사실을 밝히려 애썼다. 심씨 문중은 물론이고 역사학계나 일반 교양인들에게도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심연 연구》는 청송심씨 2세조 함문지후공 심연에 대한 사항들을 망라한 연구서이다. 현재 시 1편만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그의 유적지를 살살이 살피고 분석했다. 두 책 모두 후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심기호

캐나다 토론토 한인실업인협  
회장에(12월 1일)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취임  
(1월 1일)



심학수

안동소방서장 취임  
(1월1일)



심현규

총경 부여경찰서장 취임  
(1월 13일)



심한철

총경, 경찰청 경비과장 취임  
(1월 13일)



심재학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  
단장 취임(1월 13일)



심우철

삼성전자 상무에 (12월 9일)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전설적 아코디언 연주자  
심성락 (12월 4일)



공지사항

2020년 결산안·2021년 예산안 서면 총회, 모두 승인

대중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서면 총회의 결과를 12월 2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서면결의 통지서를 보내온 일가는 총 832명이었으며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모두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1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결과 공고

- 서면결의 총회기간 : 2021.12.14.(화)~12.24.(금)
■ 서면결의 통지서 제출 : 총 832명
- 등기 우편 : 748명 - 팩스, 메일 : 84명
■ 서면결의 통지서 대표결과

2021. 12. 29. 개표

Table with 5 columns: 심 의 안 건, 찬성, 반대, 무효, 심의결과. Rows include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기타사항.

※ 제출해 주신 의견은 종무(宗務)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2021년 12월 29일

서면결의통지서 개표 관리자

- 입회인 : 감 사 심 종 혁
대표자 : 총무이사 심 언 태
재무이사 심 규 정
문화이사 심 상 역
관리부장 손 인 숙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출판기념회(1월 22일)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고창군수로 출마하는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차관)이 1월 22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오! 자네가 덕섭인가?》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은 'THE 좋은 고창'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심 전 차장은 고창 석곡초, 영선중, 고창고를 거쳐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영국 버밍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가보훈처 차장 등을 지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일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심대평 대중회장은 축사를 했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심덕섭 전 차관과 가족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청송심씨 일가들.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심 전 차관, 대평 대중회 회장, 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12면에 이어서>

2021-2022년 연말 연시 인사

- <신한금융투자>(1월 1일자)
◇지점장 ▲군산 심규만
<농협>(1월 1일자)
◇3급 이동 ▲경상국립대학교 지점장 심재학 ▲합성지점 참사 심용규
<BNK 부산은행>(1월 1일자)
◇부지점장 전보 ▲삼산동지점 심영일 ▲화전공단지점 심경보
<BNK 투자증권>(1월 1일자)
◇3급 승진 ▲영업추진부 심현일
<세종시>(1월 3일자)
◇6급 전보 ▲조지원을 심성보
<장수군>(1월 3일자)
◇7급 승진 ▲농산업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심영우
<국방기술진흥연구소>(1월 3일자)
◇보직임명 ▲감사실장 심현호

- <한국가스공사>(1월 3일자)
◇보임 ▲전략재무처장 심규현 ▲중부안전건설단 강원안전공사부 부장 심재준 ▲대전충청지역본부 관리부 부장 심승기
<한국광해광업공단>(1월 3일자)
◇사장직속 단급 ▲해외사업관리단장 심권용
<한국투자증권>(1월 3일자)
◇상무보 승진 ▲PB전략부 심동규
<산업은행>(1월 3일자)
◇부·실장 ▲리스크관리부 심기호
<완주군>(1월 5일자)
◇전보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심미정 ▲봉동읍 심서희
<고창군>(1월 5일자)
◇6급 전보 ▲산림공원과 선운산공원팀장 심성화
<울산시 선관위>(1월 5일자)
◇4급(서기관) 전보 ▲심화섭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前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국세청>(1월 6일자)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 조사2과 심정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심재걸
◇지역본부장 ▲남부·경기중앙8(산본역) 심재욱
<기술보증기금>(1월 12일자)
◇부서장 ▲기술거래보호부 심성학
<인천광역시>(1월 13일자)
◇전보 ▲주거재생과장 심일수 ▲인사과 심순옥 (지방서기관)
<전북 남원시>(1월 13일자)
◇6급 승진 ▲보건소 심남욱 ▲도시과 심규성
<대구 수성구>(1월 13일자)
◇6급 승진 ▲중동 심영숙
◇6급이하 전보 ▲토지정보과 심문규
<경북 경산시>(1월 13일자)
◇6급 전보 ▲시민회관 관리팀장 심기섭
<전라남도>(1월 17일자)
◇팀장급 전보 ▲자치분권위원회 심정식
<전북 군산시>(1월 17일자)
◇6급 이하 전보 ▲문화예술과 심정용 ▲서수면 심하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1월 17일자)
◇지사장 전보 ▲보은지사장 심길웅

청심장학회 장학생들의 2022년 새해 포부

## 심문의 기대와 내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심 규 현**  
제1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3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서울대 박사과정에 들어가 업무와 병행

30만 일가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모두 안녕하십니까, 문정공과 27세손이자 제1기 청심장학생인 심규현입니다.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3년간의 법학공부를 마치고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11회 변호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5일에 걸쳐 모두 수기(手記)로 쏟아내야 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항상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일가 친척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청심장학재단, 청송심씨 대종회 및 일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차 부동산과 건설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그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며, 또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 선발에도 합격해 당분간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초·중·고교부터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을 학생으로서 지내왔는데, 여전히 학생의 신분을 벗지 못하게 되어(!) 마음속 한편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열정을 다해 임하려 합니다.



**박 정 빈**  
2기/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3년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합격... 인간의 삶에 도움 주는 로봇 공학자의 길로

청심장학생 선발은 제가 영재학교의 수업에 몰두하는데 많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국제과학경진대회(ISEF) 한국대표라는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하중 스프링을 이용한 웨어러블 링거 제작'이라는 연구 주제는 요양병원 봉사 활동을 하던 중 링거 거치대를 활용한 기존의 링거 투여 방식이 불편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개선해 보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시작한 연구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RnE 사업에서 과기부장관상을 받고, 국제과학경진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를 앞둔 3학년 1학기에 대회가 있어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한국대표라는 책임감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ISEF대회를 마치고 대학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영재학교에서의 3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재학교 3년은 수많은 공학 프로젝트와 연구의 연속이었고 자연스럽게 공학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로보틱스라는 학문을 전공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웨어러블 링거 연구도 더 스마트하게, 더 지능형으로 개선하고 싶으며, 이미 얻은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능형 로봇을 제작하는 공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 혜 린**  
3기/연세대 국제통상학과 3년

### 스타트업, 공모전, 토론대회, 인턴 등 미래를 향해 의욕적으로 도전

2022년 임인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저는 새로운 각오로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복수전공인 경영학도 더 깊이 공부하자는 목표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과 홍보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등의 특강도 들으며 실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된다면 외국으로 나가 인턴과 대학원 공부 등을 하며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내 글로벌 교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는 최근 독학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올해는 매사에 더 의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공모전, 토론대회, 프로젝트 등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각오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향후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인턴을 통해서도 실무적인 경험을 쌓아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확실한 비전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고 저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심 재 봉**  
3기/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돼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사회생활 첫발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제3기 청심장학생 심재봉입니다. 다시 한번 청심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장학생 수상식 당시 청송심씨를 빛내고 있는 여러 이사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학생들과도 직접 만나면서 청송심씨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인재로 성장해 청송심씨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청송심씨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합니다. 대학원 진학 후 11편의 저널(제1저자 8

편, 제2저자 3편)을 작성했고, 학회에서 4번의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임원이 되고자 합니다. 제4기 청심장학생으로 선발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6면에 청심장학회 장학생 모집요강**

# 코로나로 경영 어려운 일가들, 정성 모아 도움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일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가 기업의 명함을 모아 봤습니다. 명함을 보시고 애정을 가지고 일가 기업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일가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겉질째 먹어야 되는

http://freshapple.kr

**성송 탕갓봉 으뜸사과**

대표 심영희  
H. 010-3088-5900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길안청송로 1539-41  
노현 351-0975-9092-73 (예금주 심영희(청송모면파머))

지리산 산청 시골농장

총괄이사 심재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838  
F A X : (055) 972-1271  
Mobile : **010-8544-1339**  
E-mail : simja1262@naver.com

특허받은 자연발효 홍삼

**한국홍삼제조공사**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49길 50  
전화 : (053) 644-0000 팩스 : (053) 644-0001  
E-mail : s15770345@hanmail.net  
휴대폰 : **010-4021-0345**

전국농업기술자협회대구연합회  
회장 심호웅

디자인 나무

tel.031.989.8112 fax.031.989.8116  
mail.9898112@naver.com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김포G타워 425호  
www.namuya.or.kr

대표 심재식  
Mobile 010.5553.0685

牛玄陶藝研究所  
Woo-Hyun Ceramic Laboratory

代表 沈仁求  
Sim In Gu

우현도예공방\_용인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문현로 348,103호  
우현도\_이천점  
경기도 이천시 원적로 780번길 113-22  
TEL : (031) 634-4003  
Mobile : 010-3729-3145  
e-mail : oonggi@naver.com

**동진건설중기**

심상환

- 토목공사
- 상하수도
- 조경석쌓기
- 건물철거
- 장비대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40번길 31  
KT명서빌딩 2층 2-4호  
TEL : (055) 273-0482  
FAX : (055) 273-0483  
H.P : 010-2048-0788  
계좌 : 농협 247-02-139356

**초이스결혼문화원**

대표 심성엽

전북 익산시 중앙로 13길 43  
H·P : **010-3356-7777**  
TEL : (063) 838-3377  
FAX : (063) 854-1144  
E-mail : ssytla@hanmail.net

허가번호 : 국제 전복 10-0027  
국내 익산 13-00006

AMOREPACIFIC 아모레퍼시픽

익산신동점

심혜성

실화수 헤라 프리메라 건강기능식품

H,P 010-4699-6086  
사무실 063) 858-2246

함께 일하실분 대화영

광네는 아지아 X-kote

심현형

- 가방내화
- 표리내화 비바닥리
- 여성용외곽리
- X-Kote 쿠리어 코팅
- 우리카 코팅
- 남자 견착외곽리
- XPEL PPF 필름내화

010-4013-9474  
경북 영천시 영내리길 73 (하문동 644-2)

다용·세이버·카카오뱅크 "광네는 아지아" 검색

SUNG SIL **성실 전막 철공**

대표 심광열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33  
대표전화 : (053) **561-2676**  
팩스 : (053) **553-1308**  
H·P : **010-2868-4147**  
E-mail : skd2676@naver.com

영업종목  
• 유압굴수인어널  
• 각종 현막 제작시공  
• 각종 철구조물 제작시공  
• 자동차호루 및 아크용접개

milen

자연을 만드는 친환경 녹색기업  
(주)조은생활 김포점  
해오름기프트 가맹점

심창선 Shim, Chang-Sun 대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곡남로 588 2층  
T 031-989-4950 F 070-7356-4950 M 010-2276-4950  
E-mail changsun1041@hanmail.net http://subingift.com

베타4대

심진섭 대표

(주)정진푸드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70번길 21신영한국상가 87호  
Tel. 031-202-3628  
Fax. 031-205-3628  
Mobile. 010-2248-8555  
E-mail. shim79210@naver.com

장묘 묘지조성 및 관리, 이장 평양묘, 남궁묘 설계 시공 무연분묘, 조경, 각종 석물

장례 후불식 장례예식 서비스 • 가압제, 단제, 기원, 개안 • 국민장례문화원(장례식당)

살을 영연케 하는 기업 (주)하늘천 www.sky1000.co.kr

대표이사 심성식  
010.2700.1400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67(농협 4층) T.(062)375-1895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6, 현대도파스 1502호  
석공장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마름사지로 1039-32

전국 대표전화 (상담) 1600-1410 (긴급) 1855-1410

선장 심경준

꽃길만걸게

어성호

010-2445-4719  
063-466-4719

전북 군산시 나운안길 27 153/154호

Ch 카톡에서 두머니물농원 채널 추가하세요

**두머니물 농원**

010-2360-3411

NAVER 두머니물농원 검색

농협 301-0170-6612-51 (예금주 : 심국향)

공지사항

2022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지원자격, 선발인원, 선발대상, 지원서류, 제출처, 제출기간, 면접일자, 장학금수여. Contains details about the scholarship application process, including eligibility criteria, application dates, and award amounts.

2021. 11. 30.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장 심 대 평

☞ 장학금 기부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재)청심장학회 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

지난해 12월 31일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대중회 설립)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으로 신규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 (재)청심장학회 장학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청심장학회 활성화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요약

Table showing tax benefits for designated donations. Columns include '구분' (Category), '법인' (Corporate), '개인사업자' (Individual Business), and '개인' (Individual). Rows detail contribution tax benefits, deduction methods, and periods.

- 대중회 재무이사 겸 장학재단 상임이사 심규정 -

인터넷 족보 사진등재 추진

대동세보(족보)에 본인, 배우자, 가족사진, 묘소, 재실, 미석, 혼장, 표창장 등 다양한 사진들을 등재하여 족보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2.2.1~7.31. (6개월 간)
사진등재 : 2022.8.1~10.31
- 사진크기 : 증명사진(반명함) 이상, A4(210x297mm) 이하
- 사진설명 : 본인(배우자) 이름, 기타 사진은 내용설명
- 등재매수 : 1인당 10매 이내
- 등재비용 : 1매당 5천원 【계좌번호 : 농협 301-2267-7857-81 청송심씨대중회】
열람 및 이익신청 : 2022. 11.1~11.30
등재완료 : 2022. 12. 31
사진제출 방법
1) 우편 :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47, 찬경회관 5층
2) 메일 : set217@naver.com
사진 제출시 작성할 내용
본인(배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父)의 이름, 인터넷 족보 등재 상황(○권, ○○페이지), 사진에 대한 설명문 등

각 찬조현황(2021.11.23. ~ 2022.1.15 )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개재

Grid of donor portraits and names with columns for name, title, and contribution amount. Includes names like 심상돈, 심방부, 심익섭, etc.

임원회비

- 20년도이사회비 5만원
21년 부회장회비 30만원
21년 감사회비 20만원
21년 이사회비 5만원
이사회비(22년도) 5만원
심종택(군포), 심대섭(전북), 심의표(인천)
심상현(강원), 심대섭(전남)
심충진(감사)
심종식(광주), 심상구(원주), 심재호(원주), 심창섭(원주), 심상열(원주), 심수영(전주), 심상한(서울), 심갑택(경기), 심인섭(서울), 심봉섭(경기), 심옥인(서울), 심철유(안성), 심희섭(춘천), 심재덕(서울), 심철용(대전), 심우식(경기), 심광보(울진), 심재근(김포), 심원보(김포), 심중복(서울), 심강섭(김포), 심주택(경기), 심광섭(대치), 심용태(산청), 심명연(충주), 심재룡(경주), 심재복(경주), 심용진(서울), 심상진(인천), 심중근(충남), 심종영(경남), 심재화(경남), 심준섭(광주), 심재덕(부산), 심영종(충남), 심준구(인천), 심상영(충북), 심은섭(충북), 심재욱(충북), 심재섭(동작), 심의표(인천), 심명섭(경남), 심길택(청송), 심인보(충북), 심재섭(인천), 심재중(대전)

중보찬조

- 중보, 달력찬조 150만원
중보, 달력찬조 100만원
6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11만원
10만원
9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달력, 지로, 중보찬조 2,525,400
광주부유공파선산중회(회장 심진호)
인수부유공중회(회장 심정구), 현재공중회(회장 심종식), 진사공파중중아산중회(회장 심행근), 고창선무공선중회(회장 심재규), 부사공중회(회장 심재문), 안효공파육현문중(회장 심상보), 임천공파중회(회장 심종택)
여수중회(회장 심재수)
창현공파중중회(회장 심명룡)
예천중회, 도정공파중회, 심현근(대전중회장), 심상복(청송분향중회), 진천월촌중회(회장 심상영)
심평길, 심재득(서울), 수찬공중회, 심상돈(대구)
심원섭(천안)
심상영(일산), 심상달, 심연촌, 무속공중회, 심상천, 심재순, 심명자, 심해철(서울), 심보경, 심재봉(인방산업 회장), 심미정, 심덕섭, 심우용, 신천공파중회, 심희섭, 심재천, 심영섭, 심전섭, 심정일, 심효섭(수원), 심인보(안성), 심서래, 심재의, 심주택(경기), 심용섭, 심만섭(함평군)
심흥보 외8
심우철(서울), 심해성, 심명환(청송), 심훈섭, 심의보, 심명희(청송), 심재호(안동), 심순기, 심학섭(해인), 심상협, 심만택, 심영기, 심태섭, 심종식(천안), 심정훈, 심재기, 심여남(바우), 심명연, 심중섭, 심종래, 심상조, 심종보(세종시), 심상윤, 심대섭, 심재림, 심재도, 심재섭, 심승권(속초), 심재철(순창군), 심연택(인천시), 심인식(곡성), 심재중(대전)
심상만(고양시)
심강섭(경기), 심상익(원주), 심욱기, 심승섭, 심연희(청송), 심병은(분당), 심우섭(울진), 심재상, 심지영, 심병섭, 심재중, 심화진, 심재호(말서), 심재경, 심은석, 심강재(전남)
심재홍, 심양섭(춘천), 심태섭, 심보근, 심우훈, 심보섭, 심정환, 심종방, 안은화, 심재연, 심경훈, 심문석, 심영미, 심인규, 심남이, 심학영, 심효섭, 심상찬, 심재석(평택)

장학찬조

- 300만원 부사공중회(회장 심재문), 임천공파중회(회장 심종택)
200만원 이경공중회(회장 심재창), 심재선(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00만원 청심회 일동(회장 심종식) 50만원 심재금(김포한강신협본점 이사장)
30만원 진천월촌중회(회장 심상영) 10만원 심국형(제주), 심인식(곡성)
5만원 심란수(경기) 2만원 심준호(청송), 심재희(일산)